

뚜레쥬르 (Tous les jours : Everyday) — 시편 23 편

예전에 한 설문조사에서 성경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자주 암송하는 구절이 무엇인지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3:16,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8: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빌립보서 4:13,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리고 단연 **시편 23 편**이 있습니다. “여호와야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쉼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데도다.”

이 시편은 수천 년 동안 시대와 언어, 그리고 문화를 넘어 수많은 이들을 위로해온 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참 많이 인용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특별히 어려움에 처하신 분들에게 이 시편을 함께 나눌때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함께 누리는 은혜를 입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과정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이 이 두려움을 덮는 평안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리고니어 사역 설립자로 잘 알려진 R.C. 스프로울 목사님도 인생의 마지막까지 매일같이 시편 23 편을 붙들었다고 합니다. 나중에 호흡기질환 (COPD)으로 어려움을 참 많이 겪으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한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는 죽음이 두렵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죽어가는 과정이 두렵습니다. 그러나 시편 23 편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나는 그분의 양이라는 사실이 이 두려움을 덮는 평안을 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도 이것 아닐까 싶습니다.
두려움보다 크신 목자되신 우리 예수님 말입니다.



여러분은 ‘푸른 초장’이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저 푸른 초원을 떠올릴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상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시를 지은 다윗이 살던 팔레스타인 땅의 목초지를 보면 그 광경이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저 푸른 초원이 아니라
 바위투성이의 메마른 언덕.
 풀은 거의 없고, 대신해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만들어진 이슬로 바위 틈에 풀이
조금씩만 자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자는 양 떼를 데리고
 풀이 조금 나있는 곳으로 가서 풀을 먹이고, 또 풀이 나있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서 먹이고,
 또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양들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푸른
 초장이란 양들이 평생 누워 지낼수 있는 잔디밭이 아니라, **매일매일 이동하면서 그 때 그
 때 주어지는 양식을 먹는 초장**, 다윗이 말한 ‘푸른 초장’은 바로 그러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뚜레쥬르’라고 붙였습니다. 뚜레쥬르. 프랑스 말이지요. 빵집이라는 뜻이 아니구요, 매일 everyday 라는 뜻입니다.

뚜레쥬르. 하루하루 은혜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뚜레쥬르. 매일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양식.

그것을 먹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지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마 6:11) 왜 일용할 양식이라고 하셨을까요? 이왕이면 영원한 양식이라고 하셔서 한번 받으면 끝나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매일 매일 받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갈수 없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실제적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아무리 은혜를 듬뿍 받아서 예배당을 나섰다고 할찌라도 주차장에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즉시 다시 메마른 언덕길이 기다리고 있지요.

한국은 특히 주차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여러분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에서 받은 은혜를 주차장에서 다 흘려버린다고 말입니다.

주일에 우리가 아무리 안식을 잘 누렸다고 한들, 다시 월요일이 찾아오고, 여러가지 스트레스와 걱정과 피로가 밀려오는 것이 우리 삶의 현실입니다.

그래서오늘 시편 23 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우리의 선한 목자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가신다는 것입니다.

이곳 주일 예배에서 그 은혜를 먹었다면, 내일 월요일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그 은혜를 먹고, 수요일 밀린 집안일을 하면서도 그 은혜를 먹고, 금요일 퇴근하면서 그 은혜를 먹고..그렇게 **하루하루, 매순간 순간,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양의 특징:

1. 양은 의존적인 존재이다.
2.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
3. 양은 쉽게 길을 잃는다.
4. 양은 날마다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5. 양은 무리로 살아갑니다.
6.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주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라고 하잖아요? 양에 대한 특징이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첫째. 양은 의존적인 존재이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늘 돌봄과 인도, 보호가 필요합니다.

둘째. 양은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다. 양에게는 날카로운 발톱도, 빠른 발도, 방어할 무기도 없습니다. 누가 공격하면 그냥 당하는게 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목자의 보호가 늘 필요한 존재입니다.

셋째. 양은 쉽게 길을 잃습니다. 양이 시력도 안좋고, 방향감각도 약해서 쉽게 길을 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방황하기도 쉽고, 위험에 빠지기도 쉽다고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목자의 인도를 계속해서 받아야 하지요.

넷째. 양은 날마다 먹을 것을 필요로 합니다. 동물 중에는 오랫동안 안 먹어도 살 수 있는 동물이 있다고 해요. 고양이는 2 주 동안 안먹어도 생존 가능하다고 하구요, 낙타는 2 개월, 곰은 3 개월, 흑동고래는 6 개월, 갈라파고스 거북이는 1 년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동물 중에 1 등은 곰벌레로 30 년 생존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양은 어떨까요? 매일 먹어야 한답니다. ^^

다섯째. 양은 무리로 살아갑니다. 양은 혼자 있으면 불안해하고, 반드시 무리 가운데 있어야 안정감을 얻는다고 합니다. 또 리더를 따라가는 습성이 있다고 하지요.

여섯째. (이건 좋은 겁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요 10: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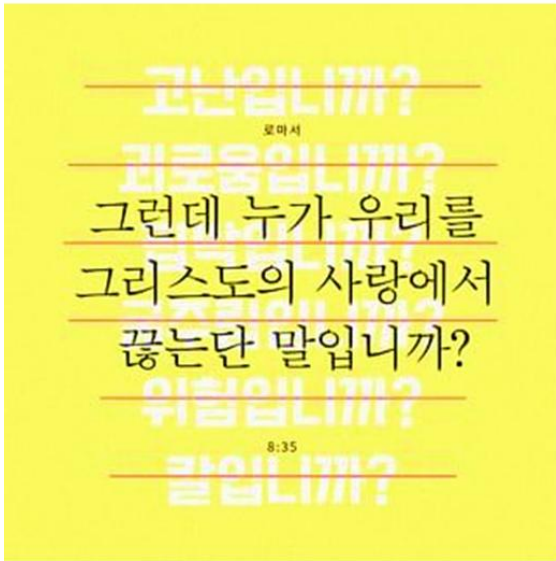
결론적으로, 양은 의존적이고, 연약하고, 목자가 꼭 필요한 존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스스로 풀밭을 찾지도 못하지요. 그러니 더더욱 절실하게 목자를 따라야 하는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일주일에 한번, 아니면 어쩌다가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순간 목자되신 예수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섰다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지요.

내가 어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이제 안주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식탁에서 밥을 먹고 손가락을 놓는 것과 동시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서 인도하실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 성령충만의 자리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내 길을 잃고, 또 영적인 시험에 빠지는 것입니다. 또다시 메마른 땅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탄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나를 집어 삼키려고 달려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 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시 23:4)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물론,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뜻도 있겠지만, **핵심**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길에는 반드시 골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병에 걸릴수도 있고, 가까운 관계가 갑자기 틀어지기도 하지요. 또는, 내 삶을 뒤흔들 경제적 어려움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말합니다—선하신 목자가 함께하시기에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바로 이 고백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8 장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림입니까, 헐벗음입니까, 위험입니까, 또는 칼입니까? ... 나는 확신합니다.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 일도, 장래 일도, 능력도, 높음도,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롬 8:31, 35, 38-39)

시편 23 편이 말하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라는 약속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는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확신으로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스미스채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신앙 여정이 언제나 푸른 초장으로 가득하고, 꽃길로만 이뤄지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지만, 현실은 바위와 흙먼지가 가득한 길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은 메마른 언덕과 바위투성이, 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계신 분이 계시지요.

오늘 이 한 가지를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선하신 목자시요, 나는 양이다.** 주님이 매일매일 우리를 먹이시고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분의 사랑은 어떤 시련에도 끊기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주님 음성따라 걷는 그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 길 따라가고, 그 음성 따라가면, 그 다음 푸른 초장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주님께서 준비해주신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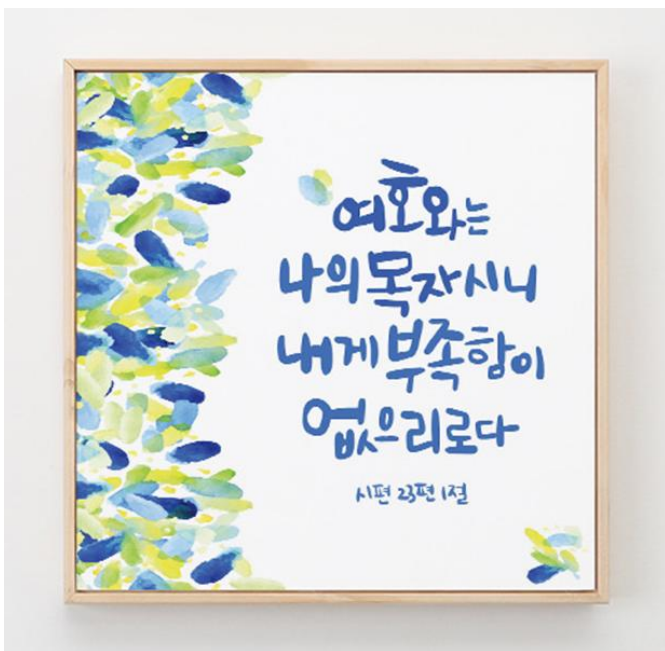
감사히 먹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먹었다고 안주해서도 안됩니다. 다시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다리에 힘을 주고, 또 주님 음성 따라 걸어가야 하는 것이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님 따라가는 길의 끝에는, 더 이상 메마르지 않고, 더 이상 나를 넘어뜨리지 않는, 내가 영원히 안식할 **푸른 초장, 여호와와 그의 집**이 기다리는줄 믿습니다.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 곳에서 살겠습니다.” (시 23:6)

그날까지, 여기 계신 한분 한분들이 **선한 목자 예수님을 따르며 뚜레쥬르 - 하루하루, 매순간순간 - 은혜를 먹는 삶**을 함께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항상 우리 입술에 이런 고백이, 우리 가슴에 이런 찬양이 울려퍼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선하신 목자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늘 인도하시는 주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때로는 메마른 언덕 같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지라도,
주님의 인도와 보호,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는 연약한 양과 감사오니,
날마다, 매순간 주님의 음성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도 일용할 은혜를 먹으며, 내일도 또 주님을 따라가며,
뚜레쥬르—매일매일 주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늘 함께하시길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묵상 질문:

1. 시편 23 편에서 말하는 “푸른 초장”은 풍성한 초원이 아니라 **매일 주어지는 은혜의 자리**라고 했습니다. 나는 오늘 어떤 자리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2. 양은 스스로 길을 찾지 못하고 목자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내 삶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하려다 길을 잃었던 부분은 무엇이었습니까?
3. 예수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요 10:27) 하셨습니다. 나는 일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습니까?
4. 사도 바울은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롬 8:35-39)고 선포했습니다. 지금 내가 두려워하거나 무거운 짐처럼 느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5. “뚜레쥬르(Everyday)”라는 설교 제목처럼, 나는 매일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먹기 위해 어떤 실제적인 영적 습관을 세워야 할까요?